

# 연말정산 카드소득공제, 작년 1인당 283만원

### 월세 28만·연금계좌 40만원 공제 올해 대중교통·소비증가 공제율↑ 소득공제 혜택 전년비 늘어날 듯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로 공제받은 소득이 지난해 1인당 평균 300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작년보다 대중교통 사용액과 소비증가분 공제율이 높아져 이보다 소득공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월세 세액공제는 1인당 평균 28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인당 평균 40만원가량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받은 인원은 1,163만1,000명, 소득공제 규모는 32조 9,5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283만원이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신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기에, 소득이 공제되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소득공제로 소득 구간이 내려가 세율이 낮아지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등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소득을 공제해준다.

총급여가 4,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등을 1,200만원 썼을 경우, 1,200만원에서 1,000만원(총급여의 25%)을 뺀 200만원에 대해 공제율을 곱해 공제 규모를 산출한다.

카드를 많이 쓴다고 무제한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더 적은 금액이 한도로 적용된다.

여기에 전통신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추가 한도가 주어진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한도는 250만원,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한도는 200만원이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전통신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등 200만원 추가 한도가 있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별로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은 30%, 전통신장·대중교통은 40%다.

작년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283만원은 2020년의 327만원보다는 줄었으나 2018년 246만원, 2019년 250만원보다는 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중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공제율을 80%까지 높여줘 혜택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이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올해는 일부 제도 변경으로 작년보다 소득공

제 혜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작년 하반기(7~12월)에 한해 기존 2배인 80%로 확대됐다.

지난해 도입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되는데, 공제율이 작년 10%에서 20%로 늘고 전통신장 소비증가분 공제도 추가됐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통신장 소비증가분을 포함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에는 추가 한도 100만원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300만원인 사람은 전통신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에 소비증가분 추가 한도 100만원까지 더하면 총 소득공제 한도가 7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연말정산 혜택 중에는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방식과 달리 세금을 바로 줄여주는 세액공제 방식도 있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활용한 세액공제 제도는 보험료 세액공제다.

보험료 세액공제로 1,148만8,000명이 총 1조 2,588억원 공제를 받았는데, 1인당 평균 11만원 정도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작년 285만9,000명이 1조 1,544억원 공제를 받아 1인당 평균 40만원 혜택을 봤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는 올해 납입한 금액부터 해당되는 제도이기에 올해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로는 작년 58만명이 1,620억원을 공제받아 1인당 평균 2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2%에서 17%로 올라간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했다면 지난해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합뉴스

## 소진공, 프랜차이즈 단계별 지원 참여업체 모집

### 예비형·성장형·상생특화형 등 내달 28일까지 최대 5천만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프랜차이즈 성장단계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및 가맹본부 내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성장단계별 지원'은 프랜차이즈화 계획과 가능성이 있는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니즈가 높은 성장단계의 중소프랜차이즈, 우수한 상생협력 계획이 있는 중소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유망 소상공인을 겨냥한 예비형은 프랜차이즈화를 준비 중인 소상공인(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필수)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과 브랜드 디자인 지원,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등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성장형은 가맹점 100개 미만 중소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성장지원, 마케팅 지원,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생특화형은 규모와 무관하나, 중견기업 이상은 제외되며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협력 구조 구축, 프랜차이즈 성장 지원, 마케팅 지원 등에 사용 가능하다.

지원대상 선정은 분야별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지원필요성, 적합성, 전문업체 수행능력 및 상생협력 계획·성과 등에 대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또한 사업 지원 종료 후에는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가맹본부를 선별해 종합홍보 및 수준평가 가점 부여 등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내달 28일까지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공식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또는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 김영집 광주TP 원장, 한국TP진흥회장 선임

### "교류협력·성과확산 노력"

(재)광주테크노파크 김영집 원장이 한국테크노파크 진흥회 제 26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8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한국테크노파크 진흥회는 전국 19개 테크노파크를 정회원으로 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지난 2006년 설립됐다. 김 선임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오는 2024년 1월 1일까지다.

김 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국장, 광주시 광산구기업추진의센터장, 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 등을 역임하며 광주시 지역경제 위기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배터리산업 육성,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지산학연 거버넌스 협의체 구축, 지역정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등 기업육성과 정책기획에 앞장서고 있다.

김 원장은 "지역산업 육성의 거점기관인 테크노파크의 네트워크 허브로서 테크노파크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해외기관의 교류 협력과 성과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해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교육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 문철필 안보공 전남본부장 취임



안보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장에 문철필 전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겸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이 취임했다.

신임 문 본부장은 전남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공단에 입사했으며, 충북지사 건설안전팀장, 제주지사 안전보건부장,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문 본부장은 "최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등 정책 변화와 산업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승현 기자

## 조달청, 설 연휴 전 건설공사 대금 조기 지급

### 전국 현장 집중 점검도

조달청은 직접 관리 중인 전국 공사 현장에 대해 설 전에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을 막는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시공된 상태를 검사하는 기성검사를 오는 13일까지 마치고,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 검토도 신속히 추진해 수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현재 28개, 1조6,000억원 규모의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 규모는 338억원에 이른다. 전국 공사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및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설 민생대책을 통해 중소·영세기업 등 조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경쟁력 제고"...건설 전남도회 신년인사회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는 지난 6일 광주 웨딩그룹 위더스에서 '2023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회 소속 대표회원 120여명과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유호규 전

남도 건설교통국장 등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후식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여러 가지 난관들이 예상되는 해이지만, 지역건설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해 건전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신년인사회에서는 건설시공과 상생협력으로 공정·투명한 건설문화 정착에 기여한 남촌종합건설 주식회사 김주원 대표이사 등 10명의 유공자에 대한 전남도지사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연수 기자



광주축산농협은 최근 본점 대회의실에서 2023년 축산인 신년교례회를 진행했다.

/광주축산농협 제공

## 광주축산농협, 축산인 신년교례회

### "동반자 역할 충실할 것"

광주축산농협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광주 관내 축산인들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2023년 축산인 신년교례회를 최근 본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개최되지 못했던 신년교례회는 올해 임·직원 및 대의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참가자 상호 간 새해 인사, 떡케이크

커팅, 오찬 등을 함께 하며 지난 한 해의 노고를 위로하고 새해 조합사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광주축산농협 김호상 조합장은 "지난 한 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합과 모든 조합원들의 행복성장에 성원해 주 깊은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올 한 해 축산인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광주·전남을 넘어 전국 제일의 '퍼스트 브랜드' 광주축산농협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나주호 가뭄현장 방문

### "강수량 부족 선제적 대처하라"

### 1,900만톤 비축 계획 수립·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은 최근 나주호 용수확보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강수량 부족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당부했다. <사진>

지난 5일 나주호를 찾은 이 사장은 "지난해 1월 시작된 남부지방 기상가뭄이 한 해 동안 이어졌던 것처럼 올해도 가뭄의 상시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용수비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1억 600만톤의 저수량으로 전남지역에서 가장 큰 농업용 저수지인 나주호의 현재 저수량은 34.8%로 65.6%를 기록했던 예년과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

5일 기준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 또한 68%로, 95%를 기록했던 평년 대비 낮다. 이 중에서도 전남의 평균 저수율은 47%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저수율이 낮은 시설을 중심으로 선제적 용수확보대책 추진에 나섰다.



인근 하천이나 배수로의 물을 끌어다 저수지에 채우는 양수저류와 간이 양수시설 설치를 통해 용수로에 물을 직접 공급하는 직접 급수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용수비축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

특히 공사는 올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저수율 전망 분석을 기반으로 용수확보가 필요한 시설 133개소에 대해 1,900만톤의 용수확보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영농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